

“사람·문화·산업 융합하는 스마트한 중구 건설할 것”

 김정현 중구청장

김정현 인천 중구청장은 지난 1일 취임식에서 “사람과 문화, 산업이 융합하는 스마트한 중구 미래 건설과 소중한 구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김 구청장은 ‘새로운 도약 글로벌 융합 도시 인천 중구’라는 구정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희망의 내항 개발 ▲상생하는 균형도시 ▲사통팔달 교통중심도시 ▲역동적 경제 ▲미래 산업 국제도시 ▲역사와 예술이 융합된 문화관광도시 ▲구민이 행복한 교육·복지도시 등 구정 목표도 발표했다.



그는 “구민과 중구의 미래를 위해 구상했던 많은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열정과 능력을 모두 쏟아 부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영재 기자

“활력 넘치는 행복도시로 거듭나는 동구 만들 것”

 김찬진 동구청장

김찬진 동구청장이 지난 1일 취임식에서 새로운 구정구호 ‘살고 싶은 도시! 활기찬 행복도시 동구’와 다시 도약하는 동구, 역사문화로 풍성한 동구, 안전하고 편안한 동구 등 3대 구정목표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동구 인구 10만 명 달성 ▲재개발·재건축 전면 시행 ▲신설 인천지하철 3호선 동구 경유 ▲여중, 여고 및 특목고 설립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 맞춤형 치아 서비스 제공 등 핵심 구정 운영 방향도 제시했다. 김 구청장은 “항상 낮은 자세로 구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



고, 동구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발로 뛰며 노력하겠다”며 “동구가 활력 넘치는 행복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용해 기자

“미추홀 구민과 소통하는 발로 뛰는 구청장 되겠다”

 이영훈 미추홀구청장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이 지난 1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미추홀구 새로운 도약을 다지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이 구청장은 “도시인프라 시설 확충, 상생복지, 창의적 인재 육성, 안전하고 건강한 삶 등을 위해 앞으로 4년간 구민과 눈높이를 맞춰 공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정구호를 ‘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로 정하고, “미추홀구 41만 주민들과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미추홀구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 이청장은



취임식 직후 첫 공식일정으로 미추홀노인복지관으로 이동해 이날 함께 취임한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배식 봉사활동을 했다.

윤용해 기자

“열심히, 겸손하게 초심 잃지 않고 연수 구민 섬길 것”

 이재호 연수구청장

이재호 연수구청장이 지난 1일 취임식에서 ▲구민을 섬기는 감동의 신뢰행정 ▲원도심과 국제도시가 상생하는 화합도시 ▲일자리와 내수가 순환되는 풍요로운 경제도시 ▲지성과 품격이 스며드는 교육·문화도시 ▲나눔과 배려가 가득한 복지도시 ▲일상이 편안하고 행복한 안전도시 등 민선8기 구정 운영방향으로 발표했다.

이 구청장은 “꿈을 이루는 행복한 연수”라는 구정 슬로건을 발표했다. 그는 “연수구를 위한 정책결정과 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공직자로



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누구보다 열심히, 누구보다 겸손하게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을 섬기면서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용해 기자

“구민 행복위한 생활 정치 실현해 남동 시대 열 것”

 박종효 남동구청장

박종효 남동구청장이 지난 1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민선 8기 남동구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박 구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생활밀착형 주거·교육·복지환경 개선 ▲청년들의 꿈과 희망 있는 남동 ▲수도권 관광명소·소래관광벨트 구축 ▲도시교통 인프라 확충 ▲도심 녹지 공간 확충 등 5대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박 구청장은 “생활 현장에서 활동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며 “행정의 답은 생활 현장에 있고, 정치는 다양한



생활 현장의 소리를 정책에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민 행복을 위한 생활 정치를 실현하고, 새로운 남동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조경욱 기자

“수도권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더 큰 부평 만들겠다”

 차준택 부평구청장

“앞으로의 4년, 더 큰 부평을 완성하고 수도권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민선8기 차준택 부평구청장 취임식이 지난 1일 부평아트센터에서 지역 주민들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차 구청장은 재선이지만 취임식은 처음이다. 4년 전에는 태풍으로 재난안전상황을 점검하며 민선7기를 시작했다.

차 구청장은 취임사에서 “추진해 온 중인 현안들을 이어나가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며 “더 겸허하고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하나둘 마무리되면 부평구는 다시 인구 50만을 넘어설 것”이라며 “그에 걸맞게 구민들의 삶의 가치와 품격을 높겠다”고 강조했다.

최태용 기자

“계양구민으로서의 자부심 느낄 수 있게 노력”

 윤환 계양구청장

윤환 계양구청장이 지난 1일 구청 납충광장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취임식에는 지역 주민들과 유동수·이재명 국회의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구청장은 “꿈이 있는 변화의 도시, 비상하는 계양을 만들기 위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새로운 계양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항상 구민이 주인임을 잊지 않고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다양하게 소통하겠다”며 “계양에서 산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 구청장은 계양



구 토박이로 3선의 구의원을 지냈다. 지난 선거에서는 문화예술공연장 신축, 계양산 테마공원 조성, 경인아라벳길 주변 친환경경계 개발 등을 공약했다.

최태용 기자

“더 나은, 더 편한, 더 좋은 서구를 구민과 완성”

 강범석 서구청장

“서구 주민 모두가 행복한 내일 있는 구정, 함께 완성하겠습니다.” 강범석 서구청장이 지난 1일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구민들을 모두 모시고 성대하게 개최하면 어떨까라는 권유가 있었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행사를 간소한 것을 양해해 달라”며 “그 어느 때보다 내일 있는 성과로 힘차게 도약해 구민 모두가 행복한 민선 8기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역량을 쏟아내 서구의 현안을 해결하겠다. 초심을 잃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구민만 바라보고 구민



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며 “최선을 다해 ‘더 나은 서구, 더 편한 서구, 더 좋은 서구’를 구민 여러분과 함께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민호 기자

“오직 강화군 발전과 군민 행복만 바라보겠다”

 유천호 강화군수

유천호 강화군수가 지난 1일 현충탑을 참배 한 뒤 취임식을 시작으로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이날 유 군수는 취임사에서 “지역을 병들게 하는 대립과 반목을 넘어 오직 군민이 행복한 강화군의 발전과 미래만을 생각하며 군정에 매진하겠다”며 “산적한 과제와 현안들을 능수능란하게 또 빠르게 해결하라는 군민들의 명을 받들어, 오직 강화군의 발전과 군민 행복만을 바라보며 없는 길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발전을 위한 성장 기반시설 확충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복지시설 확충 ▲다 함께 누리는 복지 및



사회 안전망을 구축 ▲미래의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농·축·수산업 육성 ▲생동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4년간 만들어 나갈 강화군의 청사진을 밝혔다.

정민호 기자

“인구 3만 향해 변화하는 새로운 웅진 만들겠다”

 문경복 웅진군수

문경복 웅진군수는 지난 1일 군청 효심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웅진을 새롭게! 군민을 신나게!”라는 군정비전을 선포했다. 군정목표는 ‘인구 3만을 향한 변화하는 새로운 웅진’이다.

문 군수는 ▲인재육성·지속성장 웅진구현 ▲농·수산업 진흥과 소상공인 성장·특성화사업 지원 ▲친환경 기업·연구·연수시설 유치 ▲노인 일자리 창출·복지 확충 ▲보건의료분야 현대화 ▲육상·해상 교통혁신 실현 ▲명품 관광 웅진 만들기 ▲정주환경조성 등 8개의 군정과제를 제시했다. 문 군수는 “우리 삶의 터전 웅진군을 사람이 모여드는



역동적인 웅진으로 만들겠다”며 “늘 군민 곁에서 많이 듣고, 많이 걷고, 부르기 전에 찾아가는 섬김의 행정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욱 기자